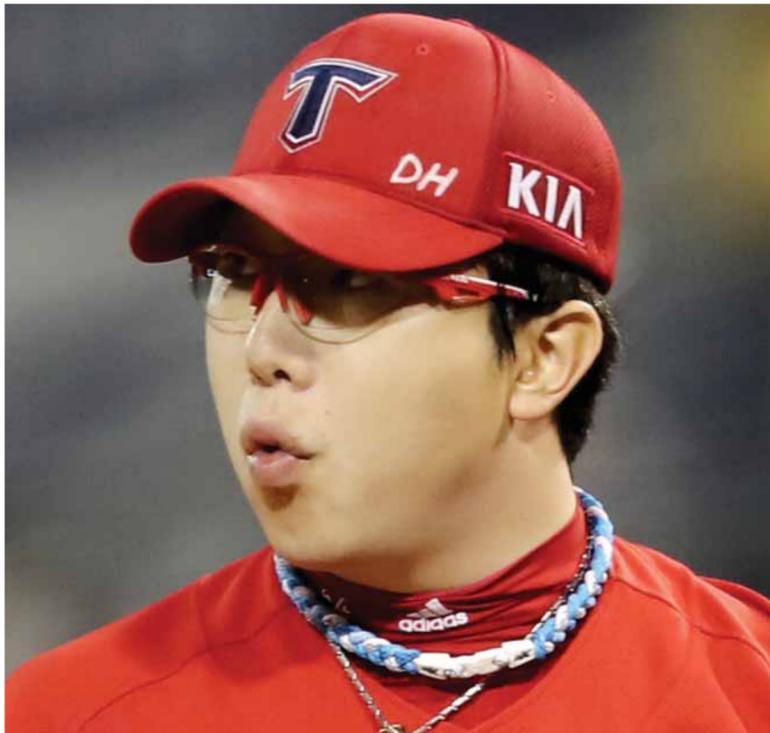


믿을건 '원투펀치'... 동반 20승 속도 낸다



KIA 헥터·양현종 나란히 17승 '공동 1위' '20승 투수' KBO 36년 역사 17차례 뿐 1985년 삼성 이여 팀내 동반 20승 도전

‘동반 20승’을 위한 막판 스피드가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의 헥터와 양현종은 ‘1위 굳히기’의 핵심 자원이다. 공백이 발생한 선발진에서 가장 믿음직한 두 투수의 승이 쌍일수록 KIA의 우승이라는 꿈은 현실과 가까워진다. 이들의 승리는 다른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20승이라는 고지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헥터와 양현종은 올 시즌 나란히 17승

을 거두면서 다승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 뒤에는 SK 켈리가 있다. 하지만 켈리는 아직 14승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다승왕은 헥터와 양현종의 ‘집안싸움’이다. 다승왕도 다승왕이지만 사람들의 눈길이 더 쏠리는 지점은 20승이다. 일단 20승은 흔한 기록이 아니다. KBO 리그 36년 역사상 한 시즌 20승 투수는 17차례 밖에 나오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지난해 두산 니퍼트(22승)와 함께 2010년 넥센 밴헤켄(20승), 2007년 두산

리오스(20승) 등 세 명만 20승 투수가 됐다. 토종 투수로 역사를 거슬러 가면 투수들의 분업화가 이뤄지기 전인 1995년까지 가야 한다. LG 이상훈의 20승이 가장 최근 기록이다. 1999년 현대에서 정민태가 20승을 채웠지만 구원승이 포함된 기록이다. 헥터가 20승을 기록하면 2000년대 마운드를 대표하는 외국인 선수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 양현종이 3승을

더하면 22년 만에 토종 선발 20승 투수가 된다. 두 사람이 모두 20승 고지에 오르면 더 귀한 기록이 만들어진다. 통산 두 번째 ‘팀내 동반 20승’이 바로 그것이다. 1985년 당시 삼성 소속이었던 김일웅과 김시진이 나란히 25승을 찍으면서 프로야구 역사상 첫 ‘팀내 동반 20승’ 기록을 합작했다. 이후 30년이 넘도록 명맥이 끊긴 귀한 기록이다. 어려운 기록이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8일과 9일 양현종과 헥터가 나란히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잔여 경기 일정을 고려하면 이들은 앞으로 5번 정도 선발 등판이 가능하다. 헥터는 올 시즌 25경기에 나와 3.27의 평균자책점으로 17승 3패를 기록하고 있다. 이 3패가 모두 후반기

에 쓰였다. ‘풍당풍당’의 피칭을 보이며 후반기 승수 쌓기에 제동이 걸렸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14이닝을 2자책점으로 묶으며 실력을 발휘했다. 가장 최근 등판인 지난 3일 넥센 원정에서는 8이닝 1실점의 완봉투를 보여줬다. 아쉽게도 9회 7실점의 불펜 덕에 18승에는 실패했지만 헥터가 전반기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반갑다. 10연승을 달리며 헥터를 추월했던 양현종은 이후 2연패로 주춤했지만 지난 2일 넥센전서 회복세를 보였다. KIA의 ‘원투펀치’가 총격의 패배들로 가라앉았던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동반 20승’이라는 무대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버나디나 “오늘은 나갑니다”...잠실 첫 등판 남재현 “와 크구나”

덕아웃 T 특특

▲오늘은 나갑니다 = 버나디나가 하루 만에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다. 버나디나는 지난 6일 LG와의 원정경기에서 아킬레스건이 좋지 않아 선발 출전을 하지 못했다. 8회 대타로 나섰다 버나디나는 7일 “오늘은 선발 출장할 수 있다. 괜찮다”고 웃었고 이날 3번 타자 겸 중견수로 이름을 올렸다. 또 이날 최원준이 이명기를 대신해 이를 연속 리드 오프로 나섰다.

▲와 크구나 = 잠실구장에 처음 서본 투수 남재현의 소감은 “와 크구나”였다. 경험이 적은 고졸 2년 차 남재현에게는 신기한 것들이 많다. 잠실구장도 그랬다. 지난 6·7일 LG와의 경기를 위해 찾은 잠실구장은 남재현에게는 낯선 장소였다. 남재현은 “살면서 잠실구장을 처음 가봤다. 와 크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며 “잠실에서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팀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등판하게 돼서 아쉬웠다”고 처음 잠실 마운드에 선 소감을 밝혔다. ▲분위기도 살리고 = KIA가 7일 엔트리를 교체했다. 외야수 백업 자원으로 이진영을 콜업하고, 내야수 홍재호를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이진영은 고졸 2년 차의 어린 선수. 김기태 감독은 “버나디나의 상태가 좋지 몰라서 이진영을 등록시켰다. 받기도 하니깐 덕아웃 분위기도 살리고 그러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기태 감독은 7일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앞선 패배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한 뒤 “감독보다도 선수들의 마음이 많이 중요하다. 선수들 격려 많이 해주라”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태환, 내일 챔스필드서 ‘세계수영대회’ 홍보



‘마린 보이’ 박태환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를 위해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KIA 타이거즈가 연구진 광주에서 열리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9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 앞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우선 ‘마린 보이’ 박태환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사인회를 갖는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인 박태환은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30분 동안 챔피언스 필드 중앙출입구 앞에서 사인회를 연다. 선착순 100명이 사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인회 참가권은 오후 2시 30분부터 1인내소에서 배부한다. 이와 함께 ‘오매 광주’ 댄스팀이 그라운드에서 ‘오매 송(song)’ 플래시몹을 갖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또 박태환과 윤장현 대회 조직위원장(광주시장)은 각각 이날 시구자와 시타자로 나선다. KIA 관계자는 “연고지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행사의 홍보와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광주수영선수권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오는 2019년 7월 12~28일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200여 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단일종목 세계 3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PGA 예비양도 한국 천하 될 것”

미 골프위크, 주목할 선수 5명 중 4명이 한국 선수

여자골프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예비양 챔피언십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는 이번 주 최신희에서 ‘예비양 챔피언십’에서 주목할 선수 5명’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4명이 한국 선수다. 올해 앞서 열린 네 차례 메이저 대회에서는 유소연(2·ANA인스퍼레이션), 대니얼 강(미국·여자 PGA챔피언십), 박성현(24·US여자오픈), 김인경(29·브리티시여자오픈)이 차례로 우승했다. 한국 국적 선수가 4개 대회 가운데 3승을 휩쓸었고 대니얼 강도 부모가 모두 한국 사람인 한국계라 올해 메이저

대회는 사실상 ‘코리아판’이 이어져 왔다. 14일부터 프랑스 예비양레벵에서 열리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예비양 챔피언십에서도 한국 선수가 우승하면 사상 최초로 한국 국적 선수가 한 시즌에 메이저 4승을 함락하게 된다. 골프위크가 선정한 ‘주목할 선수 5명’은 유소연과 박성현, 김인경 등 올해 메이저 챔피언들과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전인지(23), 세계 랭킹 3위 렉시 톱프스(미국)이었다. 세계 랭킹 1위 유소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메이저 대회에 31차례 출전해 12번이나 5위 이내 성적을 올렸다”며 꾸준한 성적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세계 2위에 오른 박성현은 “US오픈 두 번째 도전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예비양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지난해 전인지의 우승을 도왔던 캐디 데이비드 존스가 올해는 박성현과 함께한다”는 관련 포인트가 제시됐다. 이 매체는 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상승세가 가장 뚜렷한 이 선수를 제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지금까지 시즌 3승으로 다승 선두인 김인경에게도 주목했다. 지난해 우승자 전인지에 대해서는 “올해 준우승만 5차례 기록했고 언더파 라운드도 47회로 투어 최다를 기록 중”이라며 지금까지 메이저 대회에서만 2승을 거둔 ‘강심장’을 높이 평가했다. /연합뉴스

KBO 정규시즌 10월 3일 종료...KIA 11경기 일정 확정

2017 KBO리그 정규시즌이 10월 3일 종료된다. KBO가 7일 오전으로 순연된 40경기에 대한 일정을 확정했다. 새로 편성된 경기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되며, 이미 편성된 7~17일 경기가 우선으로 취소되면 예비일이 치른다. 예비일이 없으면 추후편성한다. KIA는 19일 SK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잔여 경기 일정에 들어간다. 홈 6연전 이후 원정 5연전으로 남은 일정이 끝난다. 20일에도 SK를 상대하는 KIA는 21일(목) 하루 쉬 뒤 두산(22일), kt(23일), 한화(24일)와의 홈 3연전을 갖는다. 26일 LG와의 경기가 KIA의 2017 시즌 홈 최종전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8·29일 한화 안방에서 경기를 치르는 KIA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kt와의 원정 3연전을 갖고, 2017 정규시즌의 대장정을 마감한다. 한편 우선으로 연기되는 경기는 포스트 시즌 진출팀과 관계없는 대진일 경우 포스트 시즌의 이동일에도 치를 수 있다. 정규 시즌 4·5위 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막을 여는 포스트 시즌의 개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0월 연휴 기간인 10월 1일부터 6일까지의 정규시즌, 포스트시즌 경기는 모두 오후 2시에 시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7그랜드·삼대인



남부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장연

KLPGA 그랜드 점프투어 남부대 장연주 첫 우승

주(1년)가 최근 총복 청구 그랜드 커틀리클럽에서 열린 KLPGA 2017 제2차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13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일궈냈다.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5타를 줄인 장연주는 최종라운드에서도 버디만 7개를 잡아내는 완벽한 노보기 플레이를 펼치며 최종합계 12언더파 132타(67-65)로 경기를 마쳤다. 장연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임해서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 부모님과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PGA 5승’ 저스틴 토머스 10월 제주 CJ컵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6-2017시즌에 5승을 거둔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10월 국내 팬들과 만난다.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PGA 투어 CJ컵을 개최하는 CJ그룹은 7일 “토머스과 김시우, 제이슨 데이, 애덤 스코트 등이 올해 10월 열리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토머스는 5일 끝난 PGA 투어 델 테크놀로지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이번 시즌 PGA 투어 최다승인 5승을 기록 중인 선수다. 또 시즌 상금 895만322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페덱스컵 포인트 부문에서도 조던 스피스(미국)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토머스는 CJ그룹을 통해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PGA 투어 정규대회에 출전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CJ그룹은 10월 19일부터 제주도 나인브리지에서 열리는 총상금 925만 달러가 걸린 ‘특급 대회’다. 입장권 판매 등 대회 관련 정보는 대회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theucjp.com)에 나와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야구, 아시안컵銅

한국 여자야구대표팀이 아시안컵 동메달을 차지했다. 동봉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6일 홍콩에서 열린 2017 제1회 아시아야구연맹(BFA) 여자야구 아시안컵 홍콩과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9-4로 이겼다. 대회 3승 2패, 승점 9를 얻은 한국은 일본(5승), 대만(3승 1패)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대만은 7일 인도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2위를 확정했다. 세계랭킹 7위인 한국은 일본(1위), 대만(6위), 홍콩(10위), 인도(11위), 파키스탄(12위) 등 6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일본과 대만에 패했지만, 다른 3팀을 무난하게 제압했다.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최근 실력이 급성장한 홍콩마저 누르며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동봉철 대표팀 감독은 “3개월 동안 맘 졸여 노력한 결실을 맺어 기쁘다. 선수들이 마지막 경기를 너무나 집중력 있게 잘 해줘서 이런 승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